
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자 료</div>				 대한민국 대정환 한국판뉴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시	배포	21.12.7.(화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박 재 훈(02-2100-2680)	담 당 자	김영진 사무관(02-2100-2681) 김은향 사무관(02-2100-2691)		
	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송 병 관(02-2100-2690)		허 남 혁 사무관 (02-2100-2695)		
	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 송 영 훈(02-3774-8505)		황 선 구 부 장 (02-3774-4500)		

제 목 : 고승범 금융위원장, 「글로벌 기준에 따른 ESG공시 확산전략」 토론회 (한국거래소 개최) 참석 · 축사

- ◆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「글로벌 기준에 따른 ESG 공시 확산전략」 토론회에 참석하여 유관기관 · 전문가와 ESG 공시확산을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.
- ◆ 금융위원장은 향후 ISSB (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)에서 마련할 '지속가능성 공시기준'이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진 만큼,
 - 지금은 기업, 정부, 관계기관 모두가 함께 대응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하면서, 세 가지 측면의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.
- ① 우리나라 ESG 공시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선진화
- ② 기업부담을 고려하여 공시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
- ③ 기업 및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 ESG 참여 중요성 강조

1 토론회 개요

- 일시/장소 : '21. 12. 7(화)~8(수), 14:00~16:00/
여의도 페어몬트 호텔(7일),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(8일)
- 참석 : 고승범 금융위원장,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, 정구용 상장회사 협의회장, 장경호 코스닥협회장,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, 심인숙 기업지배구조위원장, 김의형 회계기준위원장,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,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,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
- 논의 주제 : “글로벌 기준에 따른 ESG공시 확산전략” (세부는 <붙임1>)
(세션1, 12.7일) “기후변화 대응과 ESG 공시
(세션2, 12.8일) “시장참가자가 바라보는 ESG 공시”

2 금융위원장 축사 요지 ※ 별첨

□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ESG와 관련한 국제사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주요 투자자들의 ESG 관련 투자규모도 커지는 가운데,

- 최근 197개국이 참여한 COP26 회의('21.11.3.)에서 ISSB* 설립 및 국제적으로 단일한 '지속가능성 공시기준' 마련 발표 등 ESG 공시와 관련한 의미있는 논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면서,

*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(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)

** '22.2분기 초안 발표 후 '22.하반기 확정할 예정

- 향후 '지속가능성 공시기준'이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만큼 기업, 정부,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.

□ 나아가, ISSB 설립과 국제 표준화 발표를 계기로, 세계 각국의 ESG 공시 확산이 예상된다면서, 세 가지 측면의 노력을 언급하였습니다.

① 우리나라 ESG 공시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선진화

- ISSB가 제시할 글로벌 요구 수준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·개선하되, 우리의 경제상황 및 산업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,
- ISSB에 한국 인사 추천, 정부재정 지원 등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.

② ESG 공시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

-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측면이 있어 정부는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③ 기업 및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 ESG 참여 중요성 강조

-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 참여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,

* 참여기업: ('17) 8개사 → ('18) 14개사 → ('19) 20개사 → ('20) 38개사 → ('21.11월) 70개사

- 참여 확대로 ESG 관련 정보와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ESG에 대한 시장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

※ [별첨] 금융위원장 축사

[붙임1] 「ESG공시 확산전략 토론회」 세부 프로그램

[붙임2] '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점검 결과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붙임1
「ESG공시 확산전략 토론회」 세부 프로그램

일자	식 순	시간	주요내용	발표자/패널
12.7 (수)	개 회 식	14:00~14:05	거래소 이사장 환영사	KRX 손병두 이사장
		14:05~14:15	금융위원장 축사	고승범 금융위원장
	세 션 I	(Session 1) 기후변화 대응과 ESG 공시		
		14:20~14:30	IFRS재단 이사회 의장 기조연설(영상)	Erkki Liikanen
		14:30~14:45	발표① ISSB 설립 의의와 우리의 대응과제	자본시장연구원 이상호 박사
		14:45~15:00	발표② '21년 자율공시 성과평가 및 개선방향	KRX 송영훈 본부장보
		15:00~15:10	휴식	
		15:10~16:00	좌담회 (사회 : 기업지배구조원 심인숙 원장)	· KRX 임재준 부이사장 · 자본연 이인형 선임연구위원 · 회계기준원 김의형 원장 · 상장협 정우용 정책부회장 · 금융위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
12.8 (목)	세 션 II	(Session 2) 시장참가자가 바라보는 ESG 공시		
		14:00~14:05	식순소개	
		14:05~14:10	기조연설	서울대 곽수근 명예교수
		14:10~14:25	발표① ISSB 국제기준 제정방향 및 쟁점	국민대 서정우 교수
		14:25~14:40	발표② 지속가능경영과 ESG공시	포스코경영연구원 안윤기
		14:40~14:55	발표③ ESG와 국민연금 투자전략	국민연금 이동섭
		14:55~15:10	발표④ 금융회사 관점에서 ESG공시 및 쟁점	KB금융지주 문혜숙
		15:10~16:00	토론회 (사회 : 곽수근 명예교수)	주제 발표자 4인

□ 한국거래소는 ‘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공시 한 70사 (‘21.11.15 기준)의 보고서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음

○ 점검 결과, 자산 2조원 이상 법인은 61사(87%)이고, 자산 2조원 미만에서 1조원 이상은 6사, 1조원 미만은 3사임

【 연결자산 규모별 자율공시 법인 수 】

연결자산(‘20.12월말)		자율공시 법인(a)	상장법인(12월 결산)(b)	공시비율(a/b)
대규모 법인	100조원 이상	11사	14사	79%
	10조원~100조원	27사	71사	38%
	2조원~10조원	23사	131사	18%
2조원 미만		9사	562사	2%
합계		70사	778사	9%

○ ‘21년 자율공시 상장사 중 기업집단 소속이 55사*(비중 79%)로 전년 대비 28사 증가(+104%)하였음

* 55사는 21개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며, SK그룹이 7사로 최다

【 ‘19년~‘21년 기업구성별 자율공시 법인 수 】

구분	‘17년	‘18년	‘19년	‘20년	‘21.11.15
기업집단	6	8(+2)	13(+5)	27(+14)	55(+28)
금융지주·은행	2	6(+4)	7(+1)	7(+ 0)	8(+ 1)
기타	-	-(+0)	-(+0)	4(+ 4)	7(+ 3)
합계	8	14(+6)	20(+6)	38(+18)	70(+32)

*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가 기업 수

- '21년 지속가능영보고서 자율공시 기업 68사*를 대상으로 글로벌 정보공개 표준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,

* '21년 자율공시 기업 70사 중 2사는 해당 데이터 미기재로 분석대상에서 제외

- 모두 GRI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, 필요에 따라 UN SDGs(63사), SASB(50사), TCFD(46사)를 병행 사용하고 있었으며, 최근 SASB 및 TCFD 사용이 증가 추세를 보였음

- 최근 3년 연속 보고서를 자율공시 한 18사 대상으로 거래소의 'ESG 정보공개 가이드스'가 제시하는 권고지표(21개) 활용도를 점검한 결과,

- 1사당 평균 권고지표 사용수는 17개(81%)로 양호한 수준*이며, E(환경)지표 7.3개(81%), S(사회)지표 6.8개(75%), G(조직)지표 3개(100%)를 사용하였음

* 신한지주는 21개 권고지표를 모두 이용

- 거래소는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결과와 '22년 예정인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의 유용성에 대한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스를 개편할 예정임

- 또한,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용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, 자율공시 우수법인 선정·시상도 추진할 계획임
- 앞으로도 거래소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ESG공시 확산을 위하여 지속 노력 예정